

초등학생의 월경경험에 관한 주관성 연구 - 5,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

김정희* · 정연강 · 김경희 · 정혜경**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간호학과

Subjective Research on the Menstrual Experiences of Elementary Girl Students - 5th and 6th Grade Elementary Girl Students -

Jung-Hee Kim*, Yeon-Kang Chung, Kyung-Hee Kim
and Hae-Kyung Chung**

*Graduate School of Social Development, Chung-Ang University

**Department of Nursing, College of Medicine, Chung-Ang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basic data to be used in the development of a sexual education program to create an affirmative sexual egoism. We classified the types of subjectivities and revelation attitudes of menstrual experience in 5th and 6th elementary school girls. The analytic method of data was a "Q-method" (William Stephens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lassified four-types. The first type is an "open type". Girls of this type accepted menstrual experience as neither disease nor an embarrassment but as an important and natural course for a woman. The second type is the "concealing type". Girls of this type keep silent and conceal menstruation from persons because they consider it shameful or disgrace. The third type is the "conceited type". Girls of this type think that menstruation is painful-but only for them. Also, they accept such pains being 'grown-up'. The fourth type is the "tomboy type". Girls of this type want to be an eternal child; they hate being born a woman and think menstruation is troublesome. As a result of this research, we have concluded that it is necessary to educate girl students before they experience menstruation in order to develop positive attitudes towards sexuality and in so doing, aid them through adolescence.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사춘기는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띄며 일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변화가 나타나는 기간으로,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기 시작하여 유방과 골격이 발달하고 피하지방이 축적되며

특히 성적으로는 여성에게 특징적인 현상인 월경이 출현한다(박경신, 1986).

오늘날 문명의 발달과 풍요로운 식생활로 체위가 향상됨에 따라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의 체위가 10년 전에 비해 신장은 4.3cm, 체중은 3.7kg 향상되었고(김덕길, 1991), 초경 또한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로(박경신, 1986; 고경심, 1985; 박건채, 1988; 구병

삼, 1977) 근래 연구에 의하면 11세(5.0%), 12세(20.1%), 13세(34.6%), 14세(25.6%)로 20년 전의 15.5세 보다 2.3세 빨라진 13.2세로 보고하고 있다(신재철 외, 1996).

따라서 신체 조숙에 따른 초경 연령이 낮아지면서 다양한 변인의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실태 분석과 지도 대책이 요구된다.

첫 월경시 체험한 정서는 여성으로서는 가장 큰 정신적인 충격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성적 역할의 수용에 영향을 주어 여성의 성 역할과 생활 양상을 결정짓는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불유쾌한 정서적 충동을 받게 되면 월경과 여성의 성 역할에 부정적이 되며, 월경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한 지식 없이 '갈등의 시기', '불안의 시기'인 사춘기를 맞게 되어 단순한 생리적 현상으로는 커다란 심리적 의미를 지니는 발달위기를 겪게 된다. 그러므로 유쾌한 정서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춘기 소녀들이 월경경험을 하기 이전에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단순히 생리적인 변화로서의 지식 보유뿐만 아니라 여성으로서의 자긍심과 긍정적인 성 자아관 형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많은 사춘기 소녀들이 월경에 대한 정보를 친구의 경험이나 잡지, 광고 등 무분별하게 얻기 때문에 월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게 되기 쉽고 특히 부정확한 지식을 습득한 경우에는 생식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곤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초경정서에 관하여 연구한 김숙희(1985)는 당황, 놀람, 수치감, 슬픔, 분노, 걱정과 두려움 등 불쾌한 반응이 67.8%, 기쁘고 자랑스러운 반응은 15.1%에 불과했고, 조경희(1986)의 연구에서는 초경이후 월경에 대해서 '귀찮아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정적인 반응이 41.0%, '여성으로서 당연한 생리현상'으로 긍정적인 반응은 26.1%에 불과했다.

이와 같은 부정적인 정서는 첫 월경 당시의 정서가 매 월경마다 재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월경증을 유발하는 심리적 자극 요인과 월경증 인내성에도 영향을 준다.

현재 초등학교에서는 대부분 양호교사를 중심으로 월경교육이 실시되고 있으나 교육 현장의 내면을 살펴보면 첫째, 양호교사의 체계적인 월경 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고 둘째, 교육내용 또한 2차 성정의 신체적 변화에만 초점이 맞춰 있으며 셋째, 생리 시 위생

적인 관리 위주로 교육하고 넷째, 정서와 심리 교육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초등학교 시기부터 소녀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정서 구축과 긍정적인 성적 자아상을 갖도록 월경교육 방향을 인지적, 정의적 측면에서 정서적, 심리적 측면까지 포함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한편 국내에서는 월경과 관련된 연구들이 많이 행하여졌으나 주로 여중·여고생 또는 성인을 중심으로 월경전기 증상과 불편감에 대하여 연구되었고(김정은, 1993; 김제한, 1992.; 박진채, 1988; 박경신, 1986; 고정심, 1985; 윤홍임, 1984; 김미화, 1982), 대부분 측정도구를 사용하여 표면적이고 양적인 측면만을 고찰하였으며 초등학교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질적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초경 연령이 낮아지는 추세에 따라, 월경이 시작되는 초등학교 5, 6학년 시기의 연구가 필요함을 감안하여 이들을 대상으로 연구되었으며, 이를 기초 자료로 성 교육함으로써 월경은 여성의 자연스러운 기능이라는 사실을 수용하고 장차 어머니로서 역할 뿐 아니라, 건전한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성 가치관을 형성하도록 돕는데 있다.

이들이 겪는 월경 경험이 단순히 생리적인 출혈의 의미로서의 표면적이고 객관적인 연구가 아니라, 인간의 주관성을 측정하는 Q-방법을 적용, 월경에 대하여 어떤 느낌과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심리적, 정서적 반응을 알아보고 이를 유형별로 분류하고 분석함으로써 성교육의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목적

본 연구는 초등학교 여학생의 월경경험에 대한 주관성을 구조적 특성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고 분류된 유형을 과학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초등학교를 위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활용될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초등학교 여학생의 월경경험에 대한 주관적인 구조적 유형을 발견한다.
2. 초등학교 여학생의 월경경험에 대한 주관성의 유형별 특성을 분석한다.

II. 문헌 고찰

1. 초등학생의 발달상태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시기는 아동기 혹은 학동기라고 하며, 이를 전기(6~8세), 후기(9~12세)로 구분하는데, 아동 전기에는 전체적으로 포괄적이고 순조로운 성장을 하다가 아동 후기에 들어서서 신장, 체중의 증가가 현저하며 몸무게는 2배가되고 키는 25% 증가한다(조복희 외, 1998).

특히 성장 조절 내분비선인 뇌하수체(pituitary)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제2차 성 특징(secondary sex characteristics)이 나타나게 되는데, 남자인 경우 서서히 고환과 음낭, 음경이 커지고 음모와 액모가 발생하고 변성이 되며 정자의 생산 증가와 몽정이 있게 된다. 여자의 경우에는 유방이 발달하고 자궁과 질이 커지고 음모와 액모가 발생하고 골반이 확대되며 초경이 시작된다(김용익, 1995; 안영진, 1996; Tanner, 1978).

조숙한 소녀는 늦게 성숙한 동료보다 덜 사교적이며, 덜 표현적이며, 덜 침착하고, 더 내성적이며 부끄럼을 잘 타는 반면에, 조숙한 소년인 경우는 또래들 가운데 인기가 있으며 자신감이 있고 덜 충동적이나 타인을 더 의식하고 규칙과 관습에 얽매인다(조복희 외, 1998). 즉 소년인 경우 조숙이 그들의 정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갖는 반면, 소녀는 다른 아이들과 비슷하게 성장할 때 자기 개념과 자기 신체에 대해 긍정적인 개념을 갖는다(Levenson, 1961).

한편, 지능의 발달은 11-12세 경까지는 직선으로 상승하며 객관적으로 일정한 논리성을 가지고 추리가 가능해지고 성인의 50% 정도까지 발달한다. 지능의 발달 과정은 개인차가 있어 정신적·신체적 건강, 학습 조건, 성(sex), 사회 경제적 조건 등에 따라 다르며, 사회 경제적 계층이 상류층인 아동의 지능이 높고, 여아는 기억, 언어능력 등에 우세하고 남자는 수학적 능력, 기계적 능력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김계숙, 1984).

김기정 외(1995)는 아동 전기에는 자아 개념이 완만하게 안정되다가(19% 이하) 아동 후기에 확실성이 심하게 떨어지며(32% 이하), 소녀가 소년보다 자아상에 대해서 더 불확실한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소녀가 대인관계에 있어서 더 민감하고 변화하는 신체적 외모에 대

해서 더 강한 의식을 가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다.

동년배들 사이에서의 호기심은 지극히 강해지기 쉬워서 자신의 몸을 관찰하거나 친구의 몸을 관찰하면서 은밀한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일로 인하여 그릇된 개념과 틀린 지식을 얻게 되므로 그들이 신체적으로 성숙하였을 때 나타나는 생리적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김계숙, 1984).

Gesell에 의하면 이 시기의 분노의 표출은 말다툼이 논리적이 되고 계획적인 복수를 하기도 하고 부모나 교사의 행동을 비판하면서 분노를 나타내는데 불평으로 표현한다고 하였다(김제한, 1998에 인용됨). 그러므로 초등학교에서 정서 발달을 지도하는데 있어서는 아동의 성숙 수준과 요구 수준, 그리고 사회적 요구 수준을 고려하고 윤리적, 도덕적 가치에 일치하는 행동양식이 형성되도록 해야 하며, 발달 단계에 따른 체계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여 아동들이 그릇된 성 지식을 동년배의 친구들이나 외설물로부터 얻는 것을 막고 성에 대한 건전한 태도를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월경 반응

월경의 발현은 성숙기에 들어갔다는 표시로 다른 어떤 성적 변화보다 가장 크게 심리적 동요를 갖는데 긍정적인 느낌과 부정적인 느낌을 함께 갖고 반응한다. 긍정적인 느낌은 성숙하고 여자다워진다는 것에 대한 긍지를 나타내고, 부정적인 느낌은 월경에 대한 불편감과 당황스러움을 의미한다(김소야자, 1987). 즉 긍정적인 경험을 한 경우에는 자신의 성숙에 대하여 자랑스러움을 느끼고 신기하고 경이로우며 따뜻한 경험으로 여기지만, 부정적인 경험은 창피하거나 당황하고 불편하며 별로 생각하기도 하고 다른 신체 이상의 증상으로 혼돈하기도 한다(김정은, 1995).

초경 전 소녀들을 대상으로 한 우지희(1996)의 연구에서는 월경이 시작되면 몸조심을 해야하고 월경의 시작 자체를 기쁘게 받아들이거나, 기다리거나, 성장 과정으로서 당연하게 거쳐야 하는 수용적인 태도가 있는 반면에, 월경 자체를 무서워하거나, 창피하게 여기거나, 회피하거나, 맹목적으로 거부하거나, 월경이 수반하는 통증으로 인한 거부감과 여자이기에 죄 값을 치뤄야 하며, 월경하는 사람을 불쌍하게 생각하는 부정적인 태도로 구분되었다.

최근에는 월경에 대한 생리학적 지식의 증가로 더

이상 월경을 이상한 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월경을 여성들의 지극히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경험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노지은 1995), 월경은 허약해지는 기능이며 귀찮은 것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일부에서는 여자다움에 대한 긍정적인 재확인이며 실제로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믿고 있다(Brook, Ruble & Clarke, 1977).

Shainess(1961)는 초경 경험시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낸 여성들은 월경 전기에 피로, 두통, 요통, 안절부절, 정서적 불안, 불면증, 긴장 및 우울 등의 많은 긴장증세를 경험한다고 했으며, Deutsch(1944)는 초경 당시의 정서가 월경 때마다 재 경험하게 되어 여성이라는 성의 부정(denial of femininity)의 무의식적인 기도가 좌절됨에 따라 억압해 오던 죄책감, 수치심, 열등감이 재현되어 월경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였다.

월경을 불결시하거나 월경시 정상적인 활동이 제한되던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함으로 인해 공포, 정서 불안, 수치심, 불쾌감, 우울 등 정신 신경증적인 반응을 초래하기 쉬우며, 특히 성적 예비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더 심하여 강렬한 불유쾌한 충동을 받아 성에 관한 모든 문제에 매우 폐쇄적이 되는 경우도 있다(박태경, 1995).

월경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에 따른 정서는 인지와 성 역할 태도, 그 사회의 문화적 환경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즉 여성과 건강, 그리고 월경에 대한 문화 규범이 여성으로 하여금 월경 시에 나타나는 신체적인 증상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결정하게 만들고, 여성의 역할에 대하여 전통적인 태도를 지닌 여성일수록 월경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과 태도를 보인다(김은주, 1987).

부정적인 월경 반응은 월경을 경험하기 전, 월경에 대한 지식 여부에 따라, 누구에게 어떻게 들었느냐 또는 초경 시기와 월경 시 불편 감 유무에 따라, 사회 문화적 환경에 따라 중요한 변수가 된다. 적절하게 준비가 되었던 경우에는 월경 경험을 좀 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나, 반대로 전혀 모르고 있었거나 주위에 준비가 안되어 있었던 경우에는 부정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쉽고(Ruble & Brooks-Gunn, 1982), 월경에 대한 정보가 충분한 내용을 담고 긍정적으로 전달이 된다면 이후 월경에 대하여 두려움이나 불안은 줄고 월경에 대한 적응도가 높아질 테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에는 그릇된 믿음과 부정적 태도를 갖게 되기 쉽다(노지은, 1995; 최명옥, 1992; 박경신, 1986).

어머니의 월경에 대한 태도 또한 사춘기 소녀의 월경반응과 신념 획득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대부분의 어머니들은 초경의 중요성에 관하여 딸들과 의논할 준비가 되어있지 못하거나, 할 의사가 없거나, 정보 부족에 의한 곤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정현숙, 1995), 동년배보다 빠른 월경 경험은 부정적인 반응을 가져다준다(김미화, 1982).

반면에 또래의 친구들과 비슷한 시기에 경험을 한 소녀들은 동질감을 가질 수 있어서 긍정적인 감정 동요를 보인다(정현숙, 1995).

Woods(1985)는 월경 증상, 장애(Disability), 월경태도 등에 대한 사회화와 스트레스의 관계를 경로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가 많은 환경이 부정적 반응과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며, 장애(Disability)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Stoltzman(1986)은 그의 연구에서 사춘기 소녀는 월경에 대한 사회적 금기와 부정적인 고정 관념에 의해 쉽게 상처받고 신체적 불편감, 증가된 예민성, 활동과 사회적 통합의 장애를 가져온다고 믿으며 일상 활동을 제한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인습의 형성과 인습에 영향을 주는 것이 광고라고 지적하였는데, 사춘기 소녀들이 실제 경험하는 것보다 광고를 통해 월경에 대한 기대를 갖게 되고 제한하는 사회적 금기를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월경은 종종 고통스럽고 쇠약하게 한다는 대중 매체의 메시지에 의해 불편감을 느낀다고 설명하였다.

그러므로 첫 월경을 맞은 사춘기 소녀들이 월경에 대하여 건강한 정서적·인식적인 반응과 태도를 나타낼 때, 이를 칭찬하고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 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하여 월경 경험을 하기 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때 월경에 대한 긍정적 의미를 강조하고 부정적 감정 변화를 스스로 잘 조절하여 위기로서의 월경을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3. Q-방법론의 이해

본 연구는 1953년 William Stephenson에 의해 창안된 Q-방법을 적용하였다.

Q-방법론은 과학에서 경시되었던 주관적인 영역을 객관적으로 연구하는 방법으로 인간의 주관적 가치나

태도, 신념 등과 같은 주관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하여 가설이나 이론을 창출하는 방법이다(김홍규, 1992). 즉 사회 안에서 인간은 특수한 의미와 적합성의 구조를 가지므로 인간의 주관성을 배제하여서는 인간의 본질과 사회 현상을 제대로 연구할 수 없다는 것으로 보고 인간의 주관적 속성을 연구 대상으로 삼는다.

따라서 응답자 스스로가 자극들(대개는 진술문)을 비교하여 순서를 정함으로써 이를 모형화 시키고 결국 그의 주관성을 스스로 표현해 가는 것(operant)이다.

Q-방법은 '발견'에 초점을 두는 연역의 방법론으로 '외부로부터 설명'하는 방법이 아니라 '내부로부터 이해'로 접근한다. 즉 연구자의 조작적 정의(Operational definition)가 아닌 행위자의 관점에서 응답자 스스로 그들의 의견과 의미를 만들어 가는 Operational definition의 개념을 채택한다(김홍규, 1992).

따라서 여기에 사용되는 진술문(Q-Statement)은 모두 응답자의 자아 참조적(self-referent)의견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존의 방법론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성은 Q-방법론이 인간의 주관적 속성인 선호, 감정, 이상, 아름다움, 취향 등을 측정하는 것이 라면 기존의 방법은 수리능력, 언어능력, 지능과 같은 객관적 속성에 관한 것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행위자의 관점에서 출발하여 각 개인의 경험이나 지각에 따라 다르게 인식할 수 있는 추상성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하기에 유용한 연구방법인 Q-방법을 적용하였다.

III. 연구 방법

1. 연구 방법

1) Q-표본의 표집 방법(Q-sampling method)

본 연구의 Q-모집단(Q-population)은 1998년 8월 20일부터 1998년 12월 20일까지 수집하였으며 수집 방법은 문헌고찰과 면담방법인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즉 전문서적, 신문, 잡지와 교사, 부모, 월경을 경험하고 있는 초등학생과의 면담을 통하여 총 387개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의 Q-표본의 선정과정은 총 387개의 Q-모집단을 여러 번 반복하여 읽으면서 중복 내용은 삭제하고 긍정진술과 부정진술이 균형적으로 배분되도록 수정, 압축하여 1차로 152개의 진술문을 선택한 후,

다시 여러 번의 수정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34개의 진술문을 구하였다.

이를 다시 초등학교 5, 6학년의 수준에 맞게 되었는데, 이해하기 용이한지를 다시 반복 수정한 뒤 간호자 2인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으로 34개의 Q-표본을 선정하였다.

2) P-표본의 표집 방법 (P-sampling method)

Q-방법론은 개인간의 차이(inter-individual diff-

표 1. Q-sample 항목

Q - 진 술 문
1.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2. 무서웠고 당혹스러웠다.
3.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다.
4. 성폭행 당할까봐 두렵다.
5. 내가 임신할 수 있는 사실이 부담스럽다.
6. 온통 피마다가 되는 생각으로 불안하다.
7.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부담스럽다.
8. 나만 하는 것 같았다.
9. 내가 다시 태어나는 느낌으로 신비로웠다.
10. 반가웠고 자랑스러웠다.
11. 생리를 아직 하지 않는 아이들은 웬지 어련에 같다.
12.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안심이 된다.
13. 생리 할 시기에 나오지 않으면 걱정된다.
14. 아랫배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럽다.
15. 처음 초경을 했을 때 병에 걸린 줄 알았다.
16. 학교에서 생리교육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17. 어른들은 '여자니까 다 하는 거지' 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것에 서운하다.
18. 처음부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처리했다.
19. 초경을 시작하였을 때 주변으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었다.
20.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
21. 초경을 온 식구에게 알리고 기념으로 축하파티를 여는 것이 좋다.
22. 생리를 할 때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보낸다.
23. '그냥 하는가 보다'하고 아무런 느낌도 없다.
24. 생리를 할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고 힘이 솟는다.
25.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해서 기분을 전환시킨다.
26. 생리가 올 때쯤 되면 언제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한다.
27. 앞으로 키가 안 자랄까봐 걱정이다.
28. 생리는 여자의 상징이며,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다.
29. 생리를 하면 조심해지고 안전해진다.
30. 여자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더 강하게 된다.
31. 나도 이제는 어른이구나 하는 성숙 감이 든다.
32. 영화처럼 멋진 이성과 키스 등 성행위가 하고 싶어진다.
33. 나를 세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34. 생리를 하는 것을 남자아이들도 알 필요가 있다.

표 2. Q-sort의 점수 배열

카드수	2	3	4	5	6	5	4	3	2
점수	1 (-4)	2 (-3)	3 (-2)	4 (-1)	5 (0)	6 (+1)	7 (+2)	8 (+3)	9 (+4)

erences)가 아니라 개인내의 중요성의 차이(intra-individual difference in significance)를 다루는 것이므로 P-sample의 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오히려 P-sample이 커지면 통계학적으로 문제를 갖게 된다(김홍규, 1992).

따라서 본 연구는 소 표본 이론(small sample doctrine)에 근거하여 부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초등학교 10학교를 선정하고 각 학교마다 월경 경험이 있는 3~5명의 아동을 추출하여 43명을 선정하였으며, 답변이 충분치 못한 2명을 제외하고 41명만 선택하였다.

3) Q-표본 분류 및 자료분석 방법

자료수집이 완료된 후, 수집된 자료는 코딩(coding)하여 컴퓨터에 data file로 입력시켰다. 코딩은 배열카드(place cards)에 기록된 진술 항목 번호를 확인해 가면서 가장 반대하는 경우(-4)를 1점으로 시작하여 중립인 경우에는 5점, 가장 찬성하는 경우에는 9점을 부여하여 점수화 하였다(표 2 참조).

한편 자료분석은 PC-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Q-요인분석(Q-factor analysis)과 주요인 분석(Principal component factor analysis) 방법을 이용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요인수의 결정을 위해 Eigen value 1.0 이상을 기준으로 선택하였으며 그 결과 4개의 유형(type)으로 구분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고찰

1. Q-유형의 형성

월경을 경험한 여학생의 월경에 대한 주관성 요인을 입력시켜 산출한 결과 네 가지 유형이 나왔다. 이들 유형을 주 인자 분석 방법을 통해 네 가지 요인으로 분석되었으며 전체변량의 41.9%를 나타내고 있다.

각 요인별 설명력을 보면 제1유형 23%, 제2유형 8.1%, 제3유형 6.2%, 제4유형 4.3%를 나타내고 있다(표 3 참조).

연구 대상자의 구성은 제1유형이 11명, 제2유형이 16명, 제3유형이 9명, 제4유형이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 3. 유형별 Eigen Value와 변량의 백분율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아이겐치	9.5103	3.3378	2.5663	1.7718
변량의 %	.2320	.0814	.0626	.0432
누적 빈도	.2320	.3134	.3760	.4192

표 4. 유형간의 상관관계

	유형 1	유형 2	유형 3	유형 4
유형1	1.0000			
유형2	.469	1.000		
유형3	.515	.414	1.000	
유형4	.360	.532	.430	1.000

각 유형 내에서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사람이 그가 속한 유형의 전형적(Prototype) 혹은 이상적(ideal)인 사람으로 그 유형을 대표한다(Stephenson, 1982). 이들 각 유형에 분류된 연구 대상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인자 가중치(Factor weight)는 표 5와 같다.

2. 유형별 분석

이와 같은 유형별 분석 방법에 의해 나타난 네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1) 제1유형 (개방형)

제1유형은 '개방형'이라고 명명할 수 있는데, 이는 전체 대상자 41명 중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개의 유형 중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23.2%). 6학년이 8명, 5학년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주교가 4명, 무종교가 3명, 기독교가 3명, 불교가 1명이다.

유형 1에서 가장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 항목은 '앞으로 키가 안 자랄까 봐 걱정이다'(+2.28),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1.89), '생리할 시기에 나오지 않으면 걱정된다'(+1.58) 등의 순위로 나타났다. 반면 유형 1이 다른 유형에 비해 부정적 동의를 높게 보인 항목은 '온통 피바다가 되는 생각으로 불안하다'(-1.58), '나를 색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1.55), '처음 초경을 했을 때 병에 걸린 줄 알았다'(-1.41)였다(표 6 참조).

유형 1의 특징은 이 유형에 속한 여학생들이 가장 찬성하는 항목과 가장 반대하는 항목에 대한 선택 이 유를 제시함으로써 보다 명확히 알 수 있는데, 우선 이 유형에서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7번 대상자는 6학년으로 비교적 이른 시기인 5학년 여름에 초경을 경험

표 5. P-sample의 인구 사회학적 특성 및 인자 가중치(Factor weight)

유형	순위	연구대상자 번호	학년	초경 시기	종 교	형 제	부 직업	모 직업	모 학력	인자 가중치
제 1유형	1	VAR 7	6	97. 7	천주교	남자형제	회사원	주 부	대 졸	1.147
	2	VAR 3	6	98. 8	無	남자형제	조경사업	주 부	고 졸	.9714
	3	VAR 5	6	98. 4	천주교	남자형제	회사원	주 부	고 졸	.8507
	4	VAR 31	5	99. 1	천주교	남자형제	자영업	주 부	고 졸	.8174
	5	VAR 21	5	97. 12	無	無	회사원	교 사	대 졸	.7598
	6	VAR 15	5	98. 10	無	남자형제	회사원	주 부	대 졸	.7319
	7	VAR 37	6	98. 10	기독교	남자형제	상업(파일)	夫동업	고 졸	.7146
	8	VAR 27	6	99. 1	천주교	남자형제	사업(일본)	주 부	고 졸	.6555
	9	VAR 11	6	98. 2	불 교	남여동생2	사업(건물)	주 부	고 졸	.5961
	10	VAR 16	6	97. 12	기독교	남자형제	회사원	상업(야채)	고 졸	.5090
	11	VAR 34	6	98. 9	기독교	남자형제	상업(수퍼)	夫 동업	고 졸	.3483
제2유형	12	VAR 24	6	98. 10	無	남자형제	전기기사	주 부	고 졸	1.5420
	13	VAR 26	6	98. 7	기독교	남자형제	회사원	주 부	고 졸	1.2470
	14	VAR 41	6	98. 4	無	남자형제	보일러	주 부	고 졸	1.0556
	15	VAR 29	5	98. 11	기독교	여동1남동1	운수업	회사원	고 졸	1.0280
	16	VAR 39	6	98. 9	無	남자형제	경 찰	부업(웃)	고 졸	.8392
	17	VAR 10	6	98. 8	無	언 니1	회사원	주 부	고 졸	.8235
	18	VAR 2	6	97. 8	기독교	여동생1	상업(통신)	주 부	고 졸	.6373
	19	VAR 23	6	97. 8	無	남자형제	우유사업	주 부	고 졸	.6098
	20	VAR 36	6	98. 9	기독교	남자형제	상업(수퍼)	夫동업	고 졸	.5809
	21	VAR 22	5	98. 9	無	남자형제	회사원	공무원	고 졸	.4899
	22	VAR 8	6	96. 7	불 교	여동생1	사업(계약)	주 부	고 졸	.3790
	23	VAR 13	5	98. 1	여호와증 인	남자형제	건축사	주 부	고 졸	.3350
	24	VAR 28	6	98. 12	인	언니1남동1	장 의사	주 부	고 졸	.3114
	25	VAR 12	5	98. 8	기독교	無	사업(지갑)	夫동업	고 졸	.2213
26	VAR 19	6	96. 10	無	여동1남동1	은행원	주 부	대 졸	.1948	
27	VAR 18	5	98. 8	성공회	남동생1	회사원	주 부	고 졸	.1865	
제3유형	28	VAR 30	5	98. 5	기독교	남자형제	상업(생선)	주 부	초대졸	1.0888
	29	VAR 40	6	98. 4	無	언 니1	회사원	공 장	고 졸	1.0846
	30	VAR 4	6	98. 2	기독교	남자형제	식 당	夫동업	고 졸	1.0705
	31	VAR 1	6	97. 8	기독교	여동생1	상업(통신)	無	고 졸	.9673
	32	VAR 25	6	98. 7	無	남자형제	엔진기술자	회사원	고 졸	.8998
	33	VAR 33	6	98. 10	불 교	여동생1	상 업	상 업	고 졸	.4579
	34	VAR 3	6	98. 4	불 교	남자형제	자영업	부업(웃)	고 졸	.4579
	35	VAR 9	6	96. 12	기독교	남자형제	운수업	주 부	고 졸	.2411
	36	VAR 17	5	97. 12	無	언 니1	컴퓨터사업	주 부	고 졸	.0165
제4유형	37	VAR 6	6	98. 7	기독교	남자형제	사업(가구)	주 부	고 졸	1.0246
	38	VAR 32	6	97. 6	無	남자형제	회사원	가 게	대 졸	.8481
	39	VAR 14	5	98. 8	기독교	남자형제	택시기사	공 장	고 졸	.6290
	40	VAR 35	6	98. 3	기독교	여동생2	상업(파일)	夫동업	고 졸	.5564
	41	VAR 20	6	98. 3	불 교	남자형제	회사원	無	고 졸	.3369

했고 고학력의 어머니와 남자 형제를 가지고 있다.

이 대상자는 '친구들과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와 '앞으로 키가 안 자랄까 봐 걱정이다'를 가장 긍정적인 항목으로 선택하였는데 그 택한 이유를 "생리는 여자라

면 누구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친구들은 내가 조심스럽게 행동을 하는 것은 아니어도 위험한 행동을 하는 것은 삼가도록 도와줘요. 친구들도 언젠가는

표 6. 유형 1이 강하게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27. 앞으로 키가 안자랄까봐 걱정이야.	2.28
20.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	1.89
13. 생리할 시기에 나오지 않으면 걱정이야.	1.58
26. 생리가 올 때쯤 되면 언제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한다.	1.37
18. 처음부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처리했다.	1.23
16. 학교에서 생리교육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	1.12
3. 모든 것이 끝나버리고 갈아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다.	-1.24
15. 처음 초경을 했을 때 병에 걸린 줄 알았다.	-1.41
33. 나를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1.55

하는 것이기 때문에 털어놓으면 사이가 더 친해지는 것 같아요. 생리에 관한 이야기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5학년 때는 키가 부쩍 자랐는데 6학년이 되고 나서 별로 자란 것 같지 않아요. 키가 이대로 멈춰 버리고 안 자라면 어떻게 하나? 신경이 쓰이고... 길을 가다가 키가 안 큰 사람을 보면 나도 저렇게 되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그래서 유유도 많이 먹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가장 부정적인 항목은 ‘영화처럼 멋진 이성과 키스 등 성 행 가 하고 싶다’, ‘나를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를 선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멋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것은 영화와 실제 상황과는 다르니까요. 그리고 사람마다 개성이 있고 매력이 있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진술하였다.

3번 대상자는 6학년 여름에 초경을 경험하였고 전업 주부인 어머니와 남동생과 함께 생활하는 여학생으로 ‘친구들과 툭놓고 이야기를 한다’, ‘학교에서 생리교육이 많이 도움이 되었다.’를 가장 긍정적 항목으로 택하였다. 선택한 이유는 “갑자기 생리를 할 때 빌릴 수도 있고 툭 털어놓고 이야기를 하다보면 한결 마음이 편해져요. 또 나랑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욱 마음이 편해지고 친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생리 교육이 많이 도움이 되었어요. 엄마는 여자가 되면 다 하는 거라고 하시고는 방법을 안 가르쳐 주셨는데 학교에서는 처리방법까지 알려주어서 당황하지 않고 배운 대로 처리하였어요.” 라고 진술하였다.

가장 부정하는 진술문은 대상자 7과 동일하여 “TV에서 남자 친구를 만나려고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꾸미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지금 나는 초등학교생이고 어차피 내가 커서 할 수 있는 일이라 지금 내 나이는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하였다.

이와 같이 유형 1에 속한 여학생들은 월경을 혼자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고 건강한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것으로 여기고 친구 또는 어머니, 형제 등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털어놓음으로서 지지를 받고 공유감을 느끼며 그 안에서 여성으로서의 긍지를 갖는다.

이는 초경이 자신의 신체상을 명료하게 이끌며, 여성다움을 인정하고 수용한다는 Koff 등(1981)이론과, 여성이 되어 가는 것을 증명해 주기 때문에 의미 있는 것으로 여기고 성숙의 전환점으로 여기기도 하며 직접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기도 하여 누군가에게 전화하고 싶어하고, 숙녀처럼 행동하고 싶어하기도 한다는 연구(McGrory, 1995)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연구를 살펴보면 사춘기의 신체적 특징은 그 성장 발현 순서에 일련의 관련성이 있어 초경 연령과 신장은 관계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Marshall & Tanner(1969)는 초경, 유방, 성모는 발생 단계별로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초경 발현을 10.5-15.5세로 보고, 초경 발현 1년 전인 9.5-14.5세에 신장의 급증의 절정(peak)을 이룬다고 하였고, 미즈바야시(松林)와 우리 나라의 김덕길(1991), 최현숙(1987)도 초경 연령과 신장과는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아 초경 연령이 빠를수록 신장 성적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는 신장 성장 속도가 초경 시점을 중심으로 둔화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장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교육이 요구되며 그럼으로써 그들의 잘못된 신념에 의한 걱정과 두려움을 씻어 줄 필요가 있다. 이와 반대로 대상자 15는 고큰력자의 어머니에 의하여 월경에 대한 긍정적이고 유쾌한 정서를 가지고 있어 어머니의 사전교육이 정서발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1유형의 이와 같은 특성은 나머지 다른 유형에 비해 동의 정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진술문에서의 차이에서도 볼 수 있다(표 7 참조).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반가웠고 자랑스러웠다’, ‘생리를 하는 것을 남자아이들도 알 필요

표 7. 제 1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기타 유형의평균 표준점수	차이
10. 반가웠고 자랑스러웠다.	.053	-1.359	1.412
34. 생리를 하는 것을 남자아이들도 알 필요가 있다.	-.425	-1.662	1.237
27. 앞으로 키가 안 자랄까 봐 걱정이다.	2.283	1.063	1.220
24. 생리를 할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고 힘이 솟는다.	-.731	-1.797	1.066
18. 처음부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처리를 했다.	1.230	.302	.928
2. 무서웠고 당혹스러웠다.	-.957	-.025	-.932
1.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640	.776	-1.415
6. 은통 피바다가 되는 생각으로 불안하다.	-1.577	-.149	-1.428
14. 아랫배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럽다.	-.530	1.185	-1.715
7.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부담스럽다.	-.848	.894	-1.742

가 있다, '앞으로 키가 안 자랄까봐 걱정이다', '생리를 할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고 힘이 솟는다', '처음부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처리를 했다', '초경을 온 식구에게 알리고 기념으로 축하파티를 여는 것이 좋다' 순이었고 반면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부담스럽다', '아랫배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럽다', '은통 피바다가 되는 생각으로 불안하다' 순으로 조사되었다.

대상자 5는 "내가 여자라고 해서 싫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생리를 한다고 해서, 남자로 태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원망스럽게 느껴지진 않아요. 오히려 여자로 태어난 것이 다행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생리를 해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 생리는 아기를 갖는 것이므로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남자들도 여자들이 하는 생리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여자들에 함부로 하지 않고 장난을 하지 않지요." 라고 진술하였는데 이 대상자는 남녀 성 역할 인식과 태도에 차이를 두지 않고 개방적으로 여기고 있다.

대부분의 사춘기 소녀들은 첫 월경을 시점으로 남녀 성 차를 인지하고 성 분화로 받아들이고 있어, 남자 형제나 아버지에게조차 자신의 월경을 밝히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 5와 같은 경우는 남녀 성 차를 두지 않고 공개적으로 교육받기 위하여, 남성 앞에서 월경은 부끄러운 것이 아닌, 여자의 특권으로 당당하게 여기고 긍지를 갖는 적극적인 태도를 엿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유형 1의 특징은 월경경험에 대하여 상당히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개

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개방형'으로 명명하였다.

2) 제 2 유형(은폐형)

제 2유형은 모두 16명으로 전체 변량 중 8.1%에 해당하는, 두 번째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6학년이 10명, 5학년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종교는 무종교 8명, 기독교 5명, 불교, 여호와 증인, 성공회가 각각 1명씩이다.

이 유형의 특징은 월경은 부끄러운 것이며, 월경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은 창피하고 축스러운 일이어서 되도록 표시를 내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것이다. 즉 월경은 아기를 갖기 위한 정상적인 생리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찻찻하고 기운이 없고 귀찮은 작업으로 여긴다. 더욱이 내가 월경하는 사실이 남들이, 특히 남자들이 알아차리면 부끄럽고 큰 일이라도 일어날 것 같은, 자신을 멀리하고 혹여나 버림을 받을지도 모르는 일이거나 또는 자신의 배란기를 알아 성폭력 당해 임신이 되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을 갖고 있다.

가장 강한 긍정적 동의를 보인 진술 항목을 보면 '생리를 할 때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지낸다'(+1.67), '생리할 시기에 나오지 않으면 걱정된다'(+1.65), '생리를 하면 행동이 조심해지고 얌전해진다'(+1.65)의 순위로 나타났다. 반대로 가장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생리를 할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고 힘이 솟는다'(-2.47), '생리하는 것을 남자아이들도 알 필요가 있다'(-2.18), '나를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1.41) 등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이들의 특성은 표 9과 같이 유형2가 다른 유형에 비

표 8. 유형 2가 가장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22. 생리를 할 때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지낸다.	1.67
13. 생리할 시기에 나오지 않으면 걱정된다.	1.65
29. 생리를 하면 행동이 조심해지고 얌전해진다.	1.65
26. 생리가 올 때쯤 되면 언제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한다.	1.26
27. 앞으로 키가 안 자랄까 봐 걱정이다.	1.12
32. 영화처럼 멋진 이성과의 키스 등 성행위가 하고 싶어진다.	-1.33
10. 반가웠고 자랑스러웠다.	-1.38
33. 나를 세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1.41
34. 생리하는 것을 남자아이들도 알 필요가 있다.	-2.28
24. 생리를 할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고 힘이 솟는다.	-2.47

해 동의 정도가 높거나 낮게 나타난 항목들에서 명확히 나타나고 있는데 높게 동의한 항목은 '생리를 할 때 움직이지 않고 지낸다', '생리를 하면 행동이 조심해지고 얌전해진다', '처음 초경을 했을 때 병에 걸린 줄 알았다', '생리할 시기에 나오지 않으면 걱정이 된다'였고,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항목은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 '생리할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고 힘이 솟는다', '나만 하는 것 같았다',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아무 느낌도 없다'였다.

이와 같은 유형의 특징은 가장 찬성하는 항목과 가장 반대하는 항목의 선택이유를 인자 가중치가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면담한 내용을 보면 보다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유형 2에서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대상자 24는 초경을 맞은 지 얼마 되지 않은 6학년생으로 '생리할 시기에 나오지 않으면 걱정이 된다', '생리를 하면 조심해지고 얌전해진다'를 택하였는데 그 이유를 "생리

할 시기에 나오지 않으면 불안해요. 생리는 아기집이 허물어진다는 의미인데 나오지 않으니까 혹시 이상이 있는지, 걱정이 되요. 그리고 생리를 할 때는 셀까봐 걱정이 돼서 돌아다니지 않고 한 자리에 앉아 있어요. 몸이 불편하고 느낌도 이상하고 그래요. 처음 생리를 했을 때는 정말 황당했어요. '이제 내가 여자가 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반대로 가장 부정하는 항목은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다',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였는데 이유는 "이제 여자가 되었고 성숙해진 거니까 더 좋은 일이지 슬프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여자라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므로 슬픈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알면 짜증이 나요. 아이들이 눈치를 주고 웃을 것 같아 화가 나고 신경이 곤두서요. 그리고 학교에서 성교육을 할 때에 공개적으로 하면 남자애들이 알아서 짓궂게 할 것 같아요. 내가 하는 것을 알까봐 걱정이 되요. 만일 알게 되면 그 남자가 나를 이해하는 것보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부담감을 가질 것 같아요. 그리고 나에게 거부감을 가지고 멀리 할 것 같아요."라고 하였다.

두 번째로 인자 가중치가 높은 대상자 26은 6학년생으로 가장 긍정izing 이유를 "생리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이미 알았지만 그래도 막상 생리가 나왔을 때는 병에 걸린 줄만 알았어요. 교육을 받을 때 실감이 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엄마께 말씀드렸더니 '앞으로 조심하라'고 하시고 별 말씀이 없으셨어요."라고 하였다. 가장 반대하는 항목은 '반가웠고 자랑스러웠다'와 '생리하는 것을 남자아이들도 알 필요가 있다'를 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처음 생리를 맞았을 때 얼마나 이모 그리고 가족으로부터 '벌써 하면 어찌냐?' 하고 말해서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생리하는 것은

표 9. 제 2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기타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
22. 생리를 할 때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지낸다.	1.673	- .663	2.236
29. 생리를 하면 행동이 조심해지고 얌전해진다.	1.646	-.254	1.901
15. 처음 초경을 했을 때 병에 걸린 줄 알았다.	-.129	-1.153	1.024
18. 처음부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처리를 했다.	1.230	.302	.928
8. 나만 하는 것 같았다.	-.789	.114	-.953
24. 생리할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고 힘이 솟는다.	-2.470	-1.217	-1.253
20.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	-.356	1.847	-2.204

여자의 비밀이므로 남자들이 알면 부끄러워요. 그렇다고 남자들이 놀릴 것 같지는 않은데 아무튼 부끄러워요. 성교육은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썩스럽고 부끄럽기 때문이에요.” 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유형 2는 유형 1과 달리, 월경에 대하여 개방적이 아닌 은폐하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즉 월경은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썩스럽고 부끄러운 일이어서 남에게, 특히 남자들에게 노출시키는 것은 대단히 창피한 일로 여긴다. 그래서 조심스럽고 양전하게 행동하려고 노력하고 '여성스런 몸가짐'에 충실하게 되어 '예쁘고 착한 여자', '순정 있는 여자'가 되길 원한다.

이들에게서 월경 경험은 매우 특별한 사건이다. 그래서 많은 염려가 따르고 자신을 고립시키고 행동의 억압과 제한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는 Koff 등(1981)이 사춘기 소녀들은 초경을 대부분 성숙이라는 의미로 알고 아기를 가질 수 있다는 것과 어느 정도는 행동의 제한을 준다는 연구 결과와 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들은 월경을 여성성의 상징으로 해석하고 그에 대한 기대는 적극적이거나 두려움을 내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제까지 여자와 남자로서의 성의 개념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데, 월경한다는 것은 성숙을 의미하고 그것은 곧 성(sexual action)과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여 여성다움에 집착을 하거나 남성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다.

결국 월경은 육체적 변화와 관련된 사건으로 인식하기보다는 '여자의 비밀', '여자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해주는 여성 교유의 영역으로 파악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어머니, 언니, 친구들의 보살핌으로 여성들만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켜주는 연결 고리가 된다.

따라서 이들은 월경경험을 계기로 이성을 구별하고 더욱 성 차를 의식하게 되는데 특히 월경하는 동안은 평소에 함께 지내던 아버지나 남자 형제, 남자 친구, 남 선생님과 거리를 두고 멀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정현숙(1995)의 연구에서 사춘기 소녀들이 월경경험 후 아버지와의 관계가 전보다 멀어지고 대신 어머니, 여자친구, 여자가족, 여자 교사들에게 더 가까이 가면서 동질화한다는 연구결과와 동일하다. 반면에 월경을 경험한 사춘기 소녀와 아버지와의 관계를 연구한 Martin(1992)의 연구에서는 오히려 아버지가 소녀들에게 전과 같지 않게 대한다고 하였다.

또한 실수를 했던 경험은 자신을 부끄럽게 만들고 자존심을 상하게 하여 이후 수치스럽고 여성답지 못한 일로 내재화되어 월경경험에 부정적 정서로 이어진다. 부정적인 정서는 월경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고(Chandra & Chaturvedi, 1992; Sveinsdottir, 1993; Woods, 1985), 부정적인 경험은 부정적인 태도로 연결되기도 하는데, 그 기억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월경과 관련된 불편감을 더욱 예민하고 강하게 받아들이거나 표현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김정은(1995)의 연구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특성을 볼 때 유형 2는 우리 문화 속에 내재되어 있는 가부장적 성차별 사회 구조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노지은(1995)은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통념과 사회문화적 태도가 무의식적으로 자리한 보이지 않는 일상 속에서 전개되고 있으며, 더욱이 현대 과학적 지식을 근거로 월경과 월경하는 여성에 대한 혐오와 편견을 합리화시키는 보다 교묘하고 간접적인 방식으로 여성을 억압하고 은폐시킬 가능성이 많다고 주장하였다.

여중생을 대상으로 월경 증상과 관련하여 가족 환경과 여성의 태도에 대하여 연구한 이희숙(1991)은 보수적이거나 가부장 의식이 강한 가족의 아동은 동통, 불안, 우울 등과 같은 월경 증상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으며, 양순옥(1990)은 여성 성이 긍정적일 수록 월경에 대하여 잘 대처하게 되므로 월경 전 증후군과 상관될 수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이 유형은 월경을 한다는 것은 여성의 상징이며 특별한 사건으로, 부끄럽고 비밀스러운 일로 간주하는 '은폐형'으로 명명하였다.

3) 제 3 유형 (자부형)

유형 3은 9명으로서 이 중 5학년이 2명, 나머지는 모두 6학년으로 분포되어 있다.

4명이 기독교이고 2명이 불교, 나머지 3명이 무종교이다. 이들의 변량은 0.81%로서 세 번째로 높은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월경은 통증을 동반한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성숙감과 자부심을 가지는 유형이다.

이들은 월경 증상으로 겪는 동통이나 불편감을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극복해 나간다. 또한 동통을 인내하고 이겨냄으로서 자신을 '성

숙함'으로 자부하여 생리하는 친구들은 무언가 통하는 것 같고 어른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생리를 하지 않는 친구는 철없는 아이로 취급한다.

표 10을 보면 유형3이 긍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한다'(+2.22), '아랫배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럽다'(+1.56), '생리할 시기에 나오지 않으면 걱정이 된다'(+1.31), '성폭행 당할 까봐 두렵다'(+1.08)였고, 반대로 가장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생리를 하는 것을 남자애들도 알 필요가 있다'(-2.25), '나를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1.76), '생리할 때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지낸다'(-1.71)순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이는 유형 3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하거나 또는 낮게 동의한 진술문을 살펴보면 좀 더 분명하게

표 10. 유형 3이 가장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20.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 한다.	2.22
14. 아랫배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럽다.	1.56
13. 생리할 시기에 나오지 않으면 걱정이 된다.	1.31
4. 성폭행 당할 까봐 두렵다.	1.08
11. 생리를 아직 하지 않은 아이들은 웬지 어련애 같다.	1.04
31. 나도 이제는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성숙감이 든다.	1.01
29. 생리를 하면 행동이 조심해 지고 얌전해진다.	-1.11
10. 반가웠고 자랑스러웠다.	-1.12
32. 영화처럼 멋진 이성파 키스 등 성행위가 하고 싶어진다.	-1.45
22. 생리할 때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지낸다.	-1.71
33. 나를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1.76
34. 생리를 하는 것을 남자애들도 알 필요가 있다.	-2.25

표 11. 제3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기타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
6. 은통 피바다가 되는 생각으로 불안하다.	.605	-876	1.481
20.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	2.218	.989	1.229
11. 생리를 아직 하지 않은 아이들은 웬지 어련애 같다.	1.038	-.019	1.058
28. 생리는 여자의 상징이며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다.	.508	-.522	1.030
34. 생리를 하는 것을 남자들도 알 필요가 있다.	-2.250	-1.054	-1.196
26. 생리가 올 때쯤 되면 언제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한다.	-.280	1.138	-1.418
27. 앞으로 키가 안 자랄까봐 걱정이다.	-.284	1.729	-1.445
29. 생리를 하면 행동이 조심해지고 얌전해진다.	-1.109	.664	-1.773
22. 생리를 할 때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조용히 지낸다.	-1.709	.464	-2.173

알 수 있는데, 먼저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은통 피바다가 되는 생각으로 불안하다',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 '성폭행 당할까봐 두렵다', '생리를 아직 하지 않은 아이들은 웬지 어련애 같다', '생리는 여자의 상징이며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다',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성숙감이 든다'이며,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문은 '생리를 할 때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보낸다', '생리를 하면 행동이 조심스러워지고 얌전해진다', '앞으로 키가 안 자랄까봐 걱정이다', '생리가 올 때쯤 되면 언제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한다'였다(표 11 참조).

유형 3의 특성을 좀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인자 가중치가 높은 사람들의 중심으로 가장 긍정적 인 진술문과 가장 부정적인 진술문을 선택한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장 인자가중치가 높은 대상자 30은 고학력의 어머니와 남동생을 둔 6학년생으로 가장 긍정적인 항목을 '생리를 하지 않는 아이들은 웬지 어련애 같다'와 '성폭행 당할까봐 두렵다'를 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내가 생리를 하지 않을 때는 누구나 다 똑 같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생리를 한 후로 내가 어른이 된 것 같고 또 생리를 하지 않는 아이는 아직 어른 과정에 오지 못해서 꼭 유치원생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폭행 당할까봐 두려워요. 내 몸을 잘 지켜야겠어요. 그런 일을 당하면 내 자신이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아요."라고 응답하였다. 가장 반대하는 항목은 '생리를 하는 것을 남자들도 알 필요가 있다'와 '나를 섹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를 들었는데 그 이유는 "나는 애써서 남자애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여자

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하면 남자애들이 짓궂게 할 것 같아요.” 라고 하였다.

또한 대상자 40은 언니형제를 둔 6학년생으로 가장 긍정하는 항목을 이유를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부담스럽다.’를 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생리를 하는 아이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하다보면 위로가 되고 힘이 솟아요. 왜냐하면 나 혼자 불편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하나니까요..... 그러나 남자로 태어났으면 월경을 안해서 얼마나 좋을까? 남자는 힘도 세서 좋고 장난을 막 해도 되니까요.”라고 하였고, 가장 반대하는 항목은 ‘생리를 할 때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보낸다’, ‘여자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를 택하였다. 그 이유는 “생리할 때 조용히 있는 것보다 돌아다니면 조금 나오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 기분이 좋아져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체가 이상하므로 평소대로 행동을 해요. 그리고 생리가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의미가 아닌란 생각이 들어요. 순결은 꼭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아도 몸은 소중히 여겨야한다고 봐요. 어른이 되어 정말 좋은 사람이 생기면 멋진 사랑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였다.

월경은 성숙해짐에 따라 나타나는 여성의 상징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월경시 수반하는 동통으로 곤란을 겪음으로써 비로소 힘든 어른의 세계에 진입하였다는 자부심을 가지는 것이다.

이는 Rierdan & Koff(1980)의 연구에서 첫 월경 경험 이후 소녀들은 동일한 연령의 첫 월경 경험 이전 소녀보다 더욱 분명한 성 차와 성 정체감을 보여준다는 이론과 상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에게는 월경경험과 이로 인한 동통을 겪는 자체가 철부지 어린 아이의 세계와는 다르다고 여긴다. 그래서 동통을 감수하고 월경을 한다는 것을 애써 표시하지 않는다.

우지희(1996)의 연구에서는 초경 전 소녀들은 먼저 월경을 경험한 사람이 그들만의 공동체를 만들어 대화를 할 때 그 집단에 동참하여 그들과 함께 ‘어른’이 되고 싶어한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월경을 경험한 동년배 친구들이나 언니들이 그들보다 성숙함을 과시한다고 여김으로써 자연스럽게 심어진 의미로 보았다.

“생리할 때가 되면 배가 찌르고 누르는 듯이 아프고

무언가 꿈틀 대는 것 같아 징그러운 느낌이 들어요”라고 표현한 대상자 1은 월경 전 증상으로 매 월경시마다 고통을 겪는 경우이다.

월경 전 증후군은 여러 가지 생물학적 요인의 상호작용의 복합적인 결과로 알려져 있는데, 성격 특성, 기대 또는 탓으로 돌림(Attribution), 월경과 여성 역할에 대한 태도, 성에 대한 죄의식, 결혼 부적응 등과 같은 변수들도 월경 전 증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박명화, 1992).

또한 여성의 월경 증상과 성격 특성간의 관계를 연구한 박명실(1990)의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은 여성과 사회 경제적으로 안정된 여성이 월경증상을 심하게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신경증적 경향성과 정신병적 경향성이 높을수록 심한 월경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비추어 볼 때 월경 증후군은 심리적인 요소가 일차적 원인으로 여겨지므로 소녀들이 편안하고 안정된 정서를 가지고 자기관리를 할 때 월경과 관련된 동통과 불편감을 감소시킬 수 있으리라 본다.

한편 ‘은통 피바다가 되는 생각으로 불안하다.’라고 진술한 대상자 4는 월경에 대하여 불유쾌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월경을 하는 것에 대한 공포심과 불안감이 내재되어 있으나 친구들과간에 적절한 지지를 받고 있어 월경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생리는 ‘여자의 상징’이며 ‘나는 이제 어른이 되었다’는 성숙감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비록 친구의 월경경험에서 ‘빨간 피’가 충격적일지 몰라도 그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몸가짐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적절한 지지를 받는 여성에게는 지지를 적게 받거나 아주 받지 못하는 여성보다 부정적인 건강 상태가 초래될 가능성이 적고(Woods, 1985), 월경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은 월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첫 월경시기가 빠름으로 인해서 나타나지만 충분한 지지를 받음으로 월경을 자신의 것으로 쉽게 받아들인다(정현숙, 1995)는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제 3유형의 특징은 월경은 통증을 동반한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고통을 이겨냄으로써 어른의 세계로 진입하고 성숙하면서 겪어야 할 통과 의례로 보아 오히려 자부심을 갖는 ‘자부

형'으로 명명하였다.

4) 제 4 유형(부담형)

유형 4의 응답 분포는 5학년이 1명, 6학년이 4명 총 5명으로 나타났다. 종교는 기독교 3명, 불교1명, 무종교 1명이다.

이 유형은 '부담형'으로 명명할 수 있는데 '월경은 귀찮으며 부담스러운 일'로 여기는 형이다. 이들은 이미 교육과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월경에 대하여 알고 있었지만 월경을 함으로써 성인이 되는 것이 부담스럽고 키가 안 자랄까봐 걱정이고, 임신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두려워 결국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하여 부담을 느끼는 유형이다.

가장 긍정적인 동의를 보인 항목은 '앞으로 키가 안 자랄까봐 걱정이다'(1.79),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부담스럽다'(1.66), '아랫배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럽다'(1.56),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1.44), 동의 순 이었고, 반대로 가장 부정적 동의를 보인 항목은 '생리를 할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고 힘이 솟는다'(-1.93), '반가웠고 자랑스러웠다'(-1.57), '초경을 온 식구에게 알리고 기념으로 축하파티를 여는 것이 좋다'(-1.46)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12 참조).

또한 다른 유형에 비해 높게 동의한 진술문은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부담스럽다', '영화처럼 멋진 이성과 키스 등 성행위가 하고 싶어진다', '내가 임신 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 '나만 하는 것 같았다' 였고 다른 유형에 비해 낮게 동의한 진술문을 보면 '생리할 시기에 나오지 않으면 걱정이 된다', '초경을

표 12. 유형 4가 가장 동의하거나 반대하는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27. 앞으로 키가 안 자랄까봐 걱정이다.	1.79
7.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부담스럽다.	1.66
14. 아랫배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럽다.	1.56
20.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	1.44
23. '그냥 하는가 보다' 하고 아무 느낌도 없다.	1.20
5. 내가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	1.14
1.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1.06
28. 생리는 여자의 상징이며,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다.	-1.06
15. 처음 초경을 했을 때 병에 걸린 줄 알았다.	-1.28
3.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다.	-1.32
19. 초경을 시작하였을 때 주변으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었다.	-1.42
21. 초경을 온 식구에게 알리고 기념으로 축하파티를 여는 것이 좋다.	-1.46
10. 반가웠고 자랑스러웠다.	-1.57
24. 생리를 할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고 힘이 솟는다.	-1.93

시작하였을 때 주변으로부터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었다', '생리는 여자의 상징이며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다', '나도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성숙감이 든다'였다(표 13 참조).

이와 같은 유형 4의 특징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 가장 찬성하는 항목과 가장 반대하는 항목의 선택 이유를 인자 가중치가 높은 사람을 중심으로 면담한 내용을 보면, 대상자 6은 남자 형제를 둔 6학년 생으로 가장 긍정화하는 문항을 '친구들과 툭 터놓고 이야기를 한다', '앞으로 키가 안 자랄까봐 걱정이다'를

표 13. 제 4 유형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거나 낮게 동의한 진술문

진술문	표준점수	기타유형의 평균 표준점수	차이
7.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부담스럽다.	1.662	.058	1.604
32. 영화처럼 멋진 이성과 키스 등 성행위가 하고 싶어진다.	-1.190	-1.526	1.335
5. 내가 임신할 수 있다는 사실이 부담스럽다.	1.142	-0.082	1.224
8. 나만 하는 것 같았다.	.781	-4.09	1.191
14. 아랫배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럽다.	1.564	.487	1.076
33. 나를 책시하고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다.	-.592	-1.575	.983
21. 초경을 온 식구에게 알리고 축하파티를 여는 것이 좋다.	-2.250	-1.054	-1.196
26. 생리가 올 때쯤 되면 언제 할 것인가를 미리 준비한다.	-.463	-.676	-.787
18. 처음부터 학교에서 배운 대로 잘 처리했다.	-.126	.753	-.879
31. 나도 이제는 어른이 되었구나 하는 성숙감이 든다.	-.213	.705	-.917
28. 생리는 여자의 상징이며,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다.	-1.063	.002	-1.065
19. 초경을 시작하였을 때 따뜻한 위로를 받고 싶었다.	-1.424	.122	-1.546
13. 생리할 시기에 나오지 않으면 걱정이 된다.	-.424	1.513	-1.937

택하였다. 그 이유는 "학교에서 성교육을 하여 이미 다 알고 있었고 친구들 중에도 하는 아이들이 많아서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생리를 하면 키가 별로 크지 않는데 생리를 하지 않은 친구는 키가 잘 자라는 것 같아요." 가장 반대하는 항목은 '처음 초경을 했을 때 병에 걸린 줄 알았다', '생리를 할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고 힘이 솟는다'로서 이를 택한 이유는 "생리를 할 때는 기분이 좋고 힘이 솟는 것이 아니라 신경이 쓰이고 귀찮아요. 배나 허리가 조금씩 아프고 그래서 짜증이 나요." 라고 응답하였다.

대상자 32는 가장 찬성하는 항목인 '창피하고 부끄러웠다', '아랫배나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고통스럽다'를 택하였는데 그 이유는 "창피하고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이 되기 싫고 어린이로 그대로 남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생리를 한다고 해서 어른이 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어른 같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싶지 않아요. 라고 응답하였다.

가장 부정하는 항목으로 '반가웠고 자랑스러웠다', '생리는 여자의 상징이며 아름다운 꽃과 같은 것이다'였는데 택한 이유는 "제가 2학년 때 저희 언니가 생리하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그때 언니는 5학년이었는데 제가 보기에 언니가 무척 고생을 한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는 하지 말았으면.... 하는 생각을 했어요. 초경을 했을 때 아빠가 '축하한다' 하시고는 기념으로 돈을 주셨는데 기분이 나빠서 돈을 안 받았어요. 내가 생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어른이 되는 것이 싫으니까요. 어린이로 남고 싶어요. 그리고 생리가 여자의 상징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하였다.

유형 4는 월경에 대하여 이미 주위로부터 정보를 얻거나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알고는 있지만 월경 자체를 거부하는 형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첫 월경 전 부정적인 주위의 경험을 보고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게 되어 자신도 모르게 부정적으로 내재화된 것이다.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어머니나 언니 또는 친구는 부담 없이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정보 제공자인데, 이들이 주는 정보는 비록 정확하거나 체계적이지는 못해도 실제적이고 흥미로운 정보가 된다.

그러나 제공하는 정보자가 어떤 태도로 전하느냐에 따라, 그리고 월경을 처음 인지했을 때의 빠른 시기와

첫 월경 경험 당시의 정서상태에 따라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수용하게 되는데 긍정적인 경우는 여성으로서의 긍지와 자신도 성인이 되었다는 성숙감을 갖게 되나 부정적인 경우는 성인이 된다는 것을 부담스럽게 여기고 지연시키고 싶어 된다.

"내가 생리를 한다는 것이 정말 싫었어요. 어른이 되는 것이 싫으니까요. 어린이로 남고 싶어요. 그리고 생리가 여자의 상징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한 대상자 32 경우는 언니가 월경하는 것을 어린 시기에 발견하고 충격적으로 받아들여 월경을 '고생스럽고 부담스러운 것'으로 기억 속에 못을 박아, 부정적인 정서로 고착된 경우이다. 월경에 대한 부정적은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이에 대한 갈등이거나, 성인이 된다는 것을 지연시키고 싶은 심리상태를 반영한다고 한다(김정은, 1995).

또한 월경을 부인하려는 것은 여성적 역할 수용과 성인이 되려는 것을 지연시키려는 것 사이의 갈등으로 설명되기도 하고, 어린이와 같은 외모가 성인 여성의 일부를 이루기 때문에 조숙함이 자기 존중감을 낮추는 것으로 설명되기도 한다(Ussher, 1989).

이 대상자들에게는 월경경험이 '성숙한 여성됨'과는 거리가 멀고 '여성으로 된다'는 것은 자신에게 불리한 일로 받아들인다. 이는 자신이 이전에 누렸던 자유로움을 박탈당하고 자신을 '여자'로 구속한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특성을 살펴 볼 때 유형 4는 '부담형'으로 명명할 수 있다.

5) 일치항목(consensus items)

일치항목(consensus items)은 네 가지 유형이 공유하는 특성이다. 즉 4개의 유형화된 그룹 중에서 월경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중요하다고 여기는 진술문을 추출한 것이다(표 14 참조).

표 14. 일치항목(consensus items)과 표준점수

진술문	표준점수
4. 성폭행 당할까봐 두렵다.	.75
23. '그냥 하는가 보다'하고 아무 느낌이 없다.	.68
12. 엄마가 좋아하시니까 안심이 된다.	.49
30. 여자는 반드시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더 강하게 든다.	.32
25. 따뜻한 물에 샤워를 해서 기분을 전환시킨다.	.26
17. 어른들은 '여자니까 다 하는 거지'하고 얹게 여기는 것에 서운하다.	-.17
3. 슬프다는 생각이 들어 눈물이 났다.	-.97

V.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각 개인의 주관성에 관한 차이를 파악하고 추상적이 높은 개념을 객관화하기에 유용한 연구 방법인 Q-방법론을 이용하여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월경 경험에 대한 태도 유형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연구 대상은 월경을 경험한 초등학교 5, 6학년 여학생들로서 부천시내 10개교의 41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자료 수집기간은 1998. 8. 25~1999. 1. 20까지였다. Q-모집단은 월경을 경험한 초등학생과 부모, 교사 및 전문서적, 신문, 잡지 등의 문헌을 통하여 총 387개의 진술문을 수집하였으며 이를 수정한 결과 최종적으로 34개의 Q- sample이 추출되었고 이 진술문을 여학생들로 하여금 정상 분포가 되도록 자신의 의견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9점 척도로 Q-분류하도록 하였으며, 분류된 결과를 PC Quanl Program으로 Q-요인 분석을 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 1유형은 '개방형'으로 월경경험은 병에 걸리거나 부끄러운 일이 아닌, 여성으로써 중요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유형이다. 이들은 월경이 성장하면서 누구나 하는 것으로 감추거나 창피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터놓고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는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제 2유형은 '은폐형'으로 월경은 부끄러운 일이고 그것을 드러내는 것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로서 표시를 내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는 유형이다. 더구나 자신이 월경하는 것을 남자가 알면 자신을 이상하게 여기거나 멀리 할 것 같고, 심지어는 성폭력을 당해 임신이 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제 3유형은 '자부형'으로 월경은 통증을 동반하는 힘든 일이지만 이것을 견뎌냄으로서 어른의 문턱을 넘는 것이고 경험하지 않은 친구는 어린이로 취급하는 유형이다. 이들에게는 동통을 겪는 자체가 철부지 아이들 세계와는 다르다고 여기고 애써 표시하지 않음으로서 어려운 성인의 세계에 들어섰다고 여긴다.

제 4유형은 '부담형'으로 남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이 싫고 부담스러우며, 월경하는 것은 성가시고 귀찮은 행사로 여겨 그대로 어린이로 남아 있고 싶은 유형

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월경은 이전에 누렸던 어린이로서의 자유로움을 박탈하는 사건이며 '여성스러워져야 한다.'고 강요당하는, 불리한 일로 받아들여 성인이 되는 것을 지연시키고 싶은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월경경험의 긍정적 태도를 가진 집단과 부정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인구학적 또는 가족 환경적 관계 연구와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한 딸의 월경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연구가 필요하다.
2. 사춘기 소년들이 바라 본 월경에 대한 인식 및 태도는 물론, 소년들의 2차 성징 후 나타나는 변화에 따른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3. 사춘기 소년·소녀들에게 성장 발달 단계에 맞는 정규 교육과정 내에서의 보건 교육이 확립되어야 할 것을 제언하는 바이다.

참고문헌

1. 고경심 : 서울지역 고등학교 여학생의 초경 및 월경 양상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5.
2. 구병삼 : 우리 나라 여성초경에 관한 연구, 대한 산부인과학회지, 20(9), 625, 1977.
3. 김계숙 : 인간성장 발달과 건강, 서울 : 신광 출판사, 344-345, 1984.
4. 김기정 역 : 자아의 발달, Lobert L. Leahy, 서울 : 문음사, 180-181, 1995.
5. 김덕길 : 초경전후의 체격 및 체력발달에 관한 조사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6. 김미화 : 여학생의 초경에 관한 조사 연구-서울시내여자 중학생을 대상으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2.
7. 김숙희 : 서울시내 여학생의 초경 시 정서반응 및 신체증상에 관한 관찰, 대한산부인과 학회지, 28(2), 249-253, 1985.
8. 김은주 : 인성과 월경전기 중후군과의 상관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18(1), 80-93, 1987.
9. 김응익 : 건강한 청소년기를 위하여, 서울 : 서울대학교 출판부, 1-19, 1995.
10. 김정은 : Triangulation 방법을 이용한 월경 전 후기 불편감에 대한 연구, 서울대학교 간호학 박사논문,

- 1995.
11. 김정은 : 일부 여대생의 월경 전후기 불편감, 월경에 대한 태도, 성역할 인식도의 관계. *간호학회지*, 23(2), 224-244, 1993.
 12. 김정은 : 성인의 초경분석에 따른 국민 학생을 위한 초경교육의 필요성 제기, *여성건강간호학회지*, 23(2), 191-208, 1995.
 13. 김제한 : 여학생의 월경 및 성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고대 논문집*, 369-386, 1992.
 14. 김제한 : 발달 심리학, 서울 : 양서원, 343-365, 1998.
 15. 김홍규 : 주관성연구를 위한 Q-방법론의 이해, 98년 간호과학연구소 학술세미나(중앙대학교 간호대학), 22-32, 1992.
 16. 노지은 : 월경경험과 문화적 금기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 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17. 박건채 : 농촌지역 초·중 여학생의 초경 및 월경양상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교실, 1357-1375, 1988.
 18. 박경신 : 일부 여자 중학생의 초경에 대한 불안정도와 적응 및 태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6.
 19. 박명실 : 여성의 월경증상과 성격특성 간의 관계성,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0.
 20. 박명화 : 건강중진 생활양식의 이행정도와 월경 전 증상의 관계연구,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21. 박태경 : 초경에 대한 지식과 불안정도 및 태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22. 신재철, 이관, 문준, 오민정, 김박, 구병삼, 송준, 박영주 (1996). 한국 10대 여성의 초경에 관한 연구. *대한 산부인과학회지*, 39(5), 856-879, 1996.
 23. 안영진 : *新 아동발달심리*, 서울 : 길안사, 301-306, 1995.
 24. 양순옥 : 소년 여성건강 개념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회*, 189-312, 1992.
 25. 우지희 : 초경전 사춘기 소녀가 인식하는 월경에 관한 질적 연구, *한양대학교석사학위 논문*, 1996.
 26. 윤홍임 : 여고생의 월경이상 지각과 성격 특성간의 관계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4.
 27. 이경혜, 한영란, 배정희, 정금희 : 여성건강에 대한 개념 분석, *이화여자 대학교 여성건강 건강 간호학회지*, 1(2), 1995.
 28. 이희숙 : 여중생의 가족환경, 여성에 대한 태도와 월경 증상과의 관계연구, *이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29. 장영희 : 생리현상 인지와 자아개념과의 관계분석-일부 지역 여중생과 여고생을 중심으로. *대한간호*, 20(3), 66-80, 1981.
 30. 정현숙 : 사춘기 소녀들의 월경 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간호학 박사학위논문*, 1995.
 31. 조경희 : 인천시 여고생의 월경에 관한 조사연구. *인천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32. 조복희, 정옥분, 유가효 : *인간발달*, 서울 : 교문사, 339-346, 1998.
 33. 최명옥 : 일 여고생의 초경지식, 초경정서, 월경관란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34. 최현숙 : 일부 도시지역 여고생의 초경연령과 신체발육 상태에 관한 조사연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87
 35. Brooks Gunn, J. & Ruble, D. N. & Clarke, A. E.: College women's attitudes and expectations concerning menstrual-related changes, *Psychosomatic medicine*, 39, 288-298, 1977.
 36. Chandra, P. S. & Chaturvedi, S. K.: Cultural variation in attitudes toward Menstruation,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Revue canadienne de psychiatrie*, 37(3), 196-198, 1992.
 37. Coutts, L. B. & Berg, D. H.: The portrayal of the menstruation women in menstrual product advertisement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14(2), 179-191, 1993.
 38. Deutsch, H.: *The psychology of women I* : Grune & Stratton, New York, 149-184, 1944.
 39. Koff, E. & Rierdan, J. & Jacobson, S.: The personal and interpersonal significance of menarche, *Journal of the American Academy of Child Psychiatry*, 20(6), 148-158, 1981.
 40. Levenson, E. A.: The treatment of school phobia in the young adult, *American Journal of Psychotherapy*, 15, 539-552, 1961.
 41. Marshall, W. A. & J. M. Tanner: Variation in the pattern of pubertal change in girls, *Archives of Disease in childhood*, 44, 291-303, 1969.
 42. Martin Emily: *The woman in the body*, Boston : Beacon press, 1992.
 43. McGrory, A.: Education For the Menarche, *Pediatric Nursing*, 21(5), 439-443, 1995.
 44. Rierdan, J. & Koff: Premenarcheal predictors of the experience of menarche : A prospective study,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care*, 11(5), 404-407, 1980.
 45. Ruble, D. & Brooks-Gunn, J.: The experience of menarche, *Child development*, 53, 1557-1566, 1985.
 46. Shainess, N.: A re-evaluation of some aspects femininity through a study of menstruation : a pre-

- iminary report, *Comprehensive Psychiatry*, 2, 20-26, 1961.
47. Stoltzman, S.: Menstrual attitudes, beliefs, and symptom experiences of adolescent females, their peers, and their mothers, *Health Care for Women International*, 7, 97-114, 1986.
 48. Sveinsdottir, H.: The attitudes towards menstruation among Icelandic nursing students-their relation with menstrual preparation and menstrual characteristics. *Scandinavian journal of caring sciences*, 7(1), 37-41, 1993.
 49. Tanner, J. M.: *Fetus into man : Physical growth from conception to maturity*,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1978.
 50. Ussher, J. M.: *The Psychology of the female body*, London : Routledge, 1989.
 51. Woods, F.: Relationship of socialization and stress to premenstrual symptoms disability, and menstrual attitudes. *Nursing Research*, 34(3), 145-149, 1985.
 52. 松林陸三: 女子 身體發育에 關한 研究, *民族衛生*, 2(1) 3-88, 1932.